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0호 [부제 제23262호] 주제99 (2010)년 11월 6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지!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재령광산 종업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친필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재령광산 종업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은정어린 친필을 보내시었다.  
<2010. 10. 27>  
**김정일**

재령광산 종업원들은 올해 쇄돌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1월4일헌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한 크나큰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광산을 대규모의 철광석생산기지로 꾸러 나라의 주체철기둥을 쇄돌로 힘있게 떠받들어나갈 결의를 담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올리었다.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올립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문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아버지장군님, 건강하십니까?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큰 기적을 낳았습니다. 지나가나 그리운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 우리 재령광산 로동계급은 올해 쇄돌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장군님의 1월4일 헌지말씀을 9월 30일현재로 빛나게 완수한 크나큰 자랑을 안고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승리의 보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 영광의 이 시각 우리들은 이번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이 기쁨이 더없이 커지고있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두번째해인 올해에 가서야 할 곳이 많고도 많지만 최첨단 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데 이어 눈보라 사나운 천리생남길을 헤치시고 우리 재령광산에 찾아오시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우리들의 가슴가슴에 가득차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룩한 이 기적과 같은 성과는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쇄돌생산계획을 조선로동당창건 65돐준비로 수행하기 전에는 휴식할 권리, 물리실 자리가 없다는 결사판결의 투쟁정신으로 오직 생산계획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으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오늘과 같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한해 생산량보다도 엄청난 많은 쇄돌을 단 9개월동안에 생산한 이 기적과 같은 현실앞에 우리들도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제갈장에 차있던 수십mm의 물을 한달동안에 다 퍼내고 기본배출장을 타고앉았지만 자동차와 굴삭기모터 모자라 안타까움에 몸부림칠

때에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아버지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기대, 배양이 짙 차있었기에 언제나 승리의 신심을 안고 대담하게 난관을 맞받아나갈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시고 친히 작업모습까지 보여주신 현대적인 착정기를 각 이한 채굴대상들에 대한 친공발과작업과 광물 탐사에까지 리용하면서 우리들은 어느 설비보다 먼저 착정기를 보내주신 장군님의 그 선견지명에 다시금 탄복하였으며 보배덩이같은 사랑의 착정기를 날마다 새롭게 보면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고있습니다.

지난 70일전후에 제일먼저 찾아주셨던 재령광산을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잊지 않았고 그 전망을 헤아려 2004년 5월 19일에는 승숙했던 광산에 활력을 부여주시며 인민경제활성화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신 아버지장군님께서 힘찬 날쌔도 마다하지 않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우리 광산에 찾아오시어 사랑과 믿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으니 우리 재령의 광부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기에 저희들은 재령광산의 재정의 은인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광산로동계급의 가장 순결한 마음속진정을 담아 삼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아버지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명증처럼 여기고 장군님의 헌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굴착기와 자동차, 사별기 등 생산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드는 한편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 컴퓨터화된 종합지령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스키프운영의 컴퓨터화를 비롯하여 설비들의 기술개선, 현대화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내밀어 쇄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나가고있습니다.

올해의 전투를 통하여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조선은 결실하면 한다》는 신념, 우리의 강성대국건설대전은 반드시 승리할것임을 믿고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데 대하여

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 저희들은 앞으로도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명심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진투력있는 집단,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조선로동계급의 전통을 계속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올해 1월4일 헌지말씀대로 현대적인 타격회전식착정기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기술적요구대로 잘 운영하여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며 승리광구를 전망성있게 꾸리고 봉천광구를 비롯한 새로운 채굴장을 개발하는것과 함께 스키프와 사별기의 능력화강건설과 굴착기와 자동차를 비롯한 채굴 및 운반설비를 보강하고 경영활동의 컴퓨터화와 생산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다그쳐 재령광산을 대규모의 철광석생산기지로 꾸러 나라의 주체철기둥을 쇄돌로 힘있게 떠받들어나갈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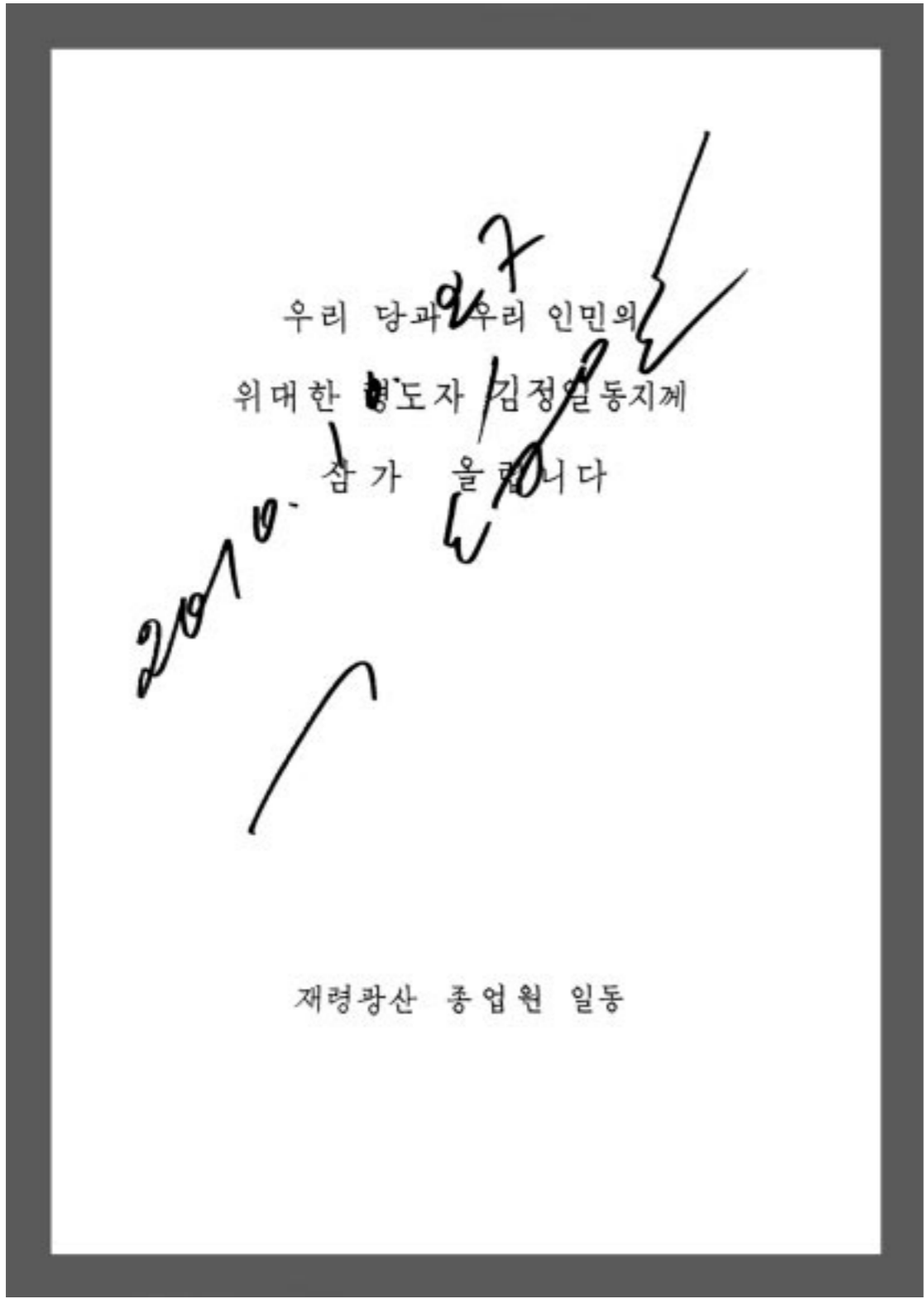
또한 우리들은 직장과 일터, 마을을 더 잘 꾸러 선군문화가 활짝 꽃피게 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올해안으로 3대혁명붉은기광산의 영예를 쟁취함으로써 만경대가문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갖는 기업소의 영예를 만방에 떨쳐나갈것입니다.

은 나라 가정의 어버이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은 우리모두의 최대의 행복이며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버지장군님, 사업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찬바람부는 광산길과 힘찬 생남길, 진원길을 더는 걷지 말아주시십시오.

로동계급의 세상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21세기의 태양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령광산 종업원들이 드립니다  
주제99 (2010)년 10월 5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 베이징제5중학교 김일성반, 월남호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프랑스 전 협조상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김일성반명명 60돐에 즈음하여 중국 베이징제5중학교 김일성반에서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이 2일 중국 베이징제5중학교 김일성반명명 6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에게 전달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월남호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온 선물들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보 반 트영 월남호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봉태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프랑스 전 협조상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프랑스 국회의원인 베르나르 더브레 프랑스 전 협조상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매희교단체 불레쎌 《동지애의 화신》 발행

매희교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에서 《동지애의 화신》이라는 제목의 불레쎌 제47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불레쎌는 《총정리 의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숭고한 동지애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에 대한 총정리와 의리에서 가장 빛나게 발현되고있다.  
일찍이 자신을 김일성주석의 전사라고 하시며 오로지 그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김정일령도자의 숭고한 도덕의리성에 대하여 세계는 1994년 7월 8일이후 더욱 감동적이 느낄수 있었다.  
주석의 서거후 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

혁명의 장구한 길을 헤쳐온 로세대 혁명가들의 투쟁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후대들이 잊지 말고 따라배우도록 강조하고계시는데 대하여 구 체적으로 사술하였다.  
불레쎌는 또한 평양에 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이 있으며 적지 않은 지역과 대학, 기관, 기업소들이 혁명렬사들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불레쎌는 《사랑과 믿음》, 《선군동지》라는 제목의 글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며 군인들을 단순히 정치실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사운명을 같이할 동지로 보시고 선군혁명의 명위와 주권을 수평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내세워주시는데 대하여 열거하고 동지애의 화신인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어 사회주의조선은 승승장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 대안 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4일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강양모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판매부문 일군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발전설비와 대상설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애국적헌신성을 지니고 대중적응용주의를 발휘하여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를 보내고자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된 역사적인 기업소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나라의 믿음직한

대규모기계생산기지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내주시어 대안과 동계급이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당시 준 전투적과업을 피하는 심정으로 받아안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결사판결의 정신,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무파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극복해나가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에서 빛나는 로적적위훈을 세웠다.

축하문은 련합기업소로동계급과 일군들이 발전설비와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나라의 건강

한 전력문제를 풀고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대형공작기계를 CNC화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설비들의 질을 훨씬 높였으며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국가에 리익을 주었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결사판결의 정신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서 당대표자와 당창건 65돐에 자랑한 로적적선물을 드리고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지배인 장원규, 초급당서 김광철, 직장장 김석, 청년동맹위원회 비서 고연일이 토론했다.

【조선중앙통신】

## 연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합충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전기기구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력으로 풀어나가면서 연간계획을 앞당겨 끝낸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재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어있는 경제적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공동사설과 공동구조에 계시어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 일군들

은 년초부터 전투작전과 지휘를 메기게 해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로적조직과 자체보장,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틀어쥐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해나갔다.

공장의 일군들은 교차생산조직을 립건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에 전기기구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줄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으로 생산에서 헌신적인 열정을 쏟았다.  
프레스작업반원들과 선반작업반원들은 기발한 착상과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설비들을 만가

시키고 부족되는 자체를 자력으로 해결하면서 생산을 힘있게 내밀었다.

무리동지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널리 받아들이고 간선 일손짜기를 발휘하여 질 좋은 여러가지 무리들을 많이 생산해냈다.

형타직장과 공동투력직장, 운수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서도 전기기구생산을 믿음직하게 떠맡길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연간계획을 끝낸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불타는 의지안고 낱알털기를 힘있게 다그친다

## 통천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빛내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찾으시어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으로서 전국에 내세워주시신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벼단실들이기와 낱알털기가 마감단계에 이른 포전과 탈곡작업이 끝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세차게 풀어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땅의 주인들, 신암리사람들의 심장과 심장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함이요 벌려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것이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생산에 자각적으로 적극 열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벼단실들이기와 낱알털기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선 어느날 이른 새벽,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오시었던 전방에서 농장별을 이속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농장일꾼들과 작업반조급일꾼들이었다.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선군시대 애국농민이 되도록 농장원대중의 정신향을 발동시킨다면 뜻깊은 올해농사철수도 문제없다.)

말없이 주고받는 눈길마다에

신암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

는 이런 하나의 생각이 비껴있었다.

청년분조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남마다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었다. 이들은 저녁에도 드넓은 벌을 대낮처럼 밝혀주는 트랙터조종수동불빛아래서 현상 벼단을 트랙터에 실었다. 마가울의 남새는 차거웠어도 가슴마다 불덩이를 안고 사는 청년분조원들의 얼굴에는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어느 하루도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이약하게 벼단실기와 부리우기를 말아하는 나이런 농장원에게 힘 들이지 않는다고 농장일꾼이 격정 어린 어조로 물었다. 순간 총알처럼 튀어나온 대답.

《힘들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런 우리 농장별에 제가 흘린 땀만큼 쌓여나가 솟아오른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일을 해도 성취치 않습니다.》

신암리농장원들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아, 감격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다주고 이런 굳은 결심이 만장약되어었다.

어느날 저녁무렵 제2작업반 2분조포전을 지내던 농장일꾼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온 하루 탈곡장에서 낱알털기를 한 분조원들이 집으로가 아니라 포전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수령은

의 벼단들을 큰길가로 끌어내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는 분조원들의 앞에서는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서있었다. 하루작업을 끝낸 이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나무랄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실천으로 보답할 줄 아는 의리의 인간이 되려는 열렬한 마음이 발걸음을 집으로가 아니라 포전으로 향하게 하였다.

순결한 량심과 헌신이 없이는 어떤 영광의 땅 신암리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오랴. 벼단운반과 낱알털기를 다그쳐 끝내는 것만큼 나라살뜰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면서 뜻깊은 올해농사철수준에서 단연 앞장선 작업반장 김강근동무를 비롯한 제 7작업반원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트랙터의 동음을 낮에 밤을 이어 높이 울리며 벼단운반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한 트랙터조급일꾼들, 우리가 뛰어내리는 한 단 한 단의 벼단에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량심이 비껴갈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공정에 낱알털기를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선동원들...

청년분조가 벼단운반과 낱알

털기전투를 지휘하고 저녁에는 밤길도록 다음해농사차비를 위한 작전을 펼치었다.

무엇이 이런 헌신, 이런 열정을 낳았는가.

우리와 만년 농장의 일꾼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랑과 믿음에 보답이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찌 선군시대의 농장원들이라 하겠습니까.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가렵니다.》

그렇다. 본보기농장의 영예, 그것은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실천으로 보답하려는 순결한 량심과 의리, 끝없는 헌신으로 빛나는 것이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향란

당대표 회견을 받고 올해농사를 결속하기 위한 헌찬 투쟁을 벌이고있는 통천군 전일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짧은 기간에 벼단운반을 전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벼가울길이전투가 시작되자 농장일꾼들은 트랙터조급일꾼들과 부림소관리공들을 만나 벼단운반실적이나 낱알털기실적이라는것, 벼단을 빨리 실어 넣어 떨어내는것만큼 낱알털기는 줄어든다는것을 깊이 인식시켜주었다.

농장일꾼들은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대중의 경쟁성과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한편 먼거리하는 트랙터로, 가까운 거리는 달구지로 벼단을 운반하도록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농장에서는 벼단운반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선포하였다. 농장원들 모두가 불내, 여름내 떨려 지는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고 낱알털기를 더욱더 각오있고 벼단운반전투에 떨쳐나섰다.

제 5작업반의 농장원들은 벼단을 논판에 뒤루는것만큼 낱

작업반들에 내려가 모든 트랙터들과 자동차부품들을 받아들이고 먼거리하는 벼단운반을 위하여 리용물을 높이도록 대책을 세웠으며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주었다.

벼가울길이전투가 시작되자 농장일꾼들은 트랙터조급일꾼들과 부림소관리공들을 만나 벼단운반실적이나 낱알털기실적이라는것, 벼단을 빨리 실어 넣어 떨어내는것만큼 낱알털기는 줄어든다는것을 깊이 인식시켜주었다.

농장일꾼들은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대중의 경쟁성과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한편 먼거리하는 트랙터로, 가까운 거리는 달구지로 벼단을 운반하도록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농장에서는 벼단운반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선포하였다. 농장원들 모두가 불내, 여름내 떨려 지는 낱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고 낱알털기를 더욱더 각오있고 벼단운반전투에 떨쳐나섰다.

제 5작업반의 농장원들은 벼단을 논판에 뒤루는것만큼 낱

알이 허실없다고 하면서 그날 벼단운반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그리하여 농장으로 제일먼저 벼단운반을 끝내었다.

제 7, 1, 4작업반에서는 포전별벼단운반계획을 정확히 세워놓고 트랙터조급일꾼들, 부림소관리공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트랙터조급일꾼들과 부림소관리공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따라 벼단운반성과가 좌우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만가동을 보장하여 벼단운반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농장의 모든 작업반조급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운반한 실고부리를 때 한이상의 벼, 한알의 낱알도 허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면서 벼단을 운반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벼단운반을 20일이나 앞당겨 끝내게 되었다.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벼단운반을 끝낸 기세로 낱알털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남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 탈곡장에서 만난 일꾼

산 두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의무이기에 전염병이요 양심이며야 하며 의리이고 실천이여야 한다.》

얼마전 우리가 통천군 산두협동농장에 도착한것은 마가울의 짧은 해가 서산에 기울어가는 저녁무렵이었다. 농장의 한 일꾼이 제 7작업반 탈곡장에서 가만 관리위원장을 만날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서둘러 결음을 올렸다.

탈곡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낱알털기에 여념이 없는 농장원들, 벼단을 가득 실고 탈곡장으로 들어서는 트랙터들과 벼단을 부리우고 탈곡장을 나서는 트랙터들... 탈곡장은 낱알털기전투로 세차게 끓고있었다. 농장원들속에 어울려 낱알털기를 하는 낯익은 작업반장에게 다가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자 그는 오후

내것 현장에서 낱알털기전투를 지휘한 관리위원장이 방금 제 1작업반 탈곡장으로 갔다고 말하느라 있었다.

피지군방향을 얼마쯤 가니 피지마한 언덕에 제 1작업반 탈곡장이 있었다. 벼단을 가득 실은 트랙터와 달구지의 뒤를 따라 탈곡장마당에 들어서니 탈곡기앞에서 작업반장 한기명동무와 무엇인가 토의하는 녀성관리위원장이 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까지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이 시계의 초침소리가 일장의 박동을 맞추어 올해 낱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녀성관리위원장의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내려는 사랑에 보답이 따르지는 애국농민의 미망한 도리이기에.

본사기자

얼마전 통천군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던 나는 신암협동농장 제 1작업반 탈곡장에서 정을을 멈추었다. 기운 차게 돌아오는 《남부 1》로 탈곡기에 쟁쟁히 벼단을 실기는 농장원들의 신바람난 모습이 눈에 안겨들었다.

그속에는 온 나라가 다 있는 녀성관리위원장이 있었다. 불뿔이 가늘어지는 한 해를 벌에서 살다싶이 한 녀성관리위원장은 낱알털기가 한창인 이 계절에도 농장원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정말 수고도 많았다는 나의 입에서 그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벼단들이 무거운수룩 우리의 마음은 가벼운수룩 무거운 벼단과 가벼운 마음!》

새길수록 뜻이 깊은 말이였다. 나라의 쌀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내려는 사랑에 보답이 따르지는 애국농민의 미망한 도리이기에.

본사기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당대표 회견을 받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있는 통천군 협동농장 제 7작업반 탈곡장에 서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벼를 잘 거머들이고 낱알털기를 낱기하여 한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장마를 한열에 반듯하게 일며서 탈곡장은 마당단계에 들어서 낱알털기전투로 세차게 끓는다. 만가울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는 탈곡기, 벼단을 가득 실고 탈곡장으로 들어서는 트랙터와 달구지들, 쌀쌀한 마가울까지도 구슬땀을 흘리며 낱알털기에 여념이 없는 농장원들...

탈곡장곳에서 세차게 나뉠 것은 붉은기가 낱알털기에 펼쳐진 농장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준다.

원하게 돌아가는 농장원들은 탈곡기에 농장원들이 능숙한 솜씨로 벼단을 부리우려다. 벼전에 한알의 벼알이라도 섞여나갈새라 갇잡히 들춰보고

재빨리 뛰어넘어가는 녀성농장원들과 벼단들이 차르른 마대를 지어내는 모습은 볼수없다. 모든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려간다. 탈곡장주변에 높이 쌓여있는 벼단무지들이 시간을 다투며 낮아지는데 편견에 벼단을 가득 실은 6호대의 트랙터가 들어선다.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탈곡기에 벼단을 물리던 작업반장 장영근동무가 농장원들을 돌리며 한마디 한다.

《자, 낱알털기전투에서도 장사리사람들의 본때를 보십시오! 장사리사람들의 본때!》

그 절절한 소리를 들으니 올해 여름 장사리를 뜻지니 농장에서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치하해주고 장사리사람들의 헌신과 애국의 열정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사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시울뜨겁게 어려온다.

그날의 그 모습, 그 믿음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사는 장사리사람들이던 그 어떤 일순마다에 혁신의 불바람 일지 않았다.

본사기자

결정차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벼단을 장사리에서 부리고 포전을 참하여 또다시 기세끓는 트랙터로 물아가는 운전자들, 벼단을 가득 실은 달구지를 몰고 탈곡장에 들어서서 부림소관리공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 어린다.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낱알털기전투를 지휘하던 관리위원장은 방금탈곡기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세기를 두고 이어지는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들을 보다 큰 위훈창조로 불러주는 마름줄 모는 샘입니다. 영원한 그 사랑에 실천으로 보답하십시오.》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도 가슴차서서 그 보답할 심장의 맹세 또한 열렬한 장사리사람들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철저히 편철하여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할 이 곳사람들의 드높은 의지의 승결과 이룩한 탈곡기의 동음은 시간 이 흐를수록 더욱 세차게 울려 퍼진다.

본사기자

## 늘 군중속에 들어가 일감을 찾는 기풍

길주철도분국 당위원회 사업에서

뜻깊은 올해 길주철도분국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해놓은 일 또한 많다.

철도의 현대화에 나서는데 수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사업과 침묵생산, 열차들의 급수보장대책 ...

그 일거리의 대부분을 당위원회일꾼들이 맡고있다.

늘 군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고 통이 큰 일꾼으로 훌륭한 결실을 맺고있는 이 곳 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꾼들은 군중이 선성이며 군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대교조의 분위기로 분국이

은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대중의 의견을 참고하며 사색을 거듭해본다 자체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고해졌던 것이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만나 담화하는 과정에 그는 공기마치를 개조하면 객차차수리에서 더 큰 혁신이 창조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대의 실정에서 수백이 나 되는 이 기계를 자체로 개조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곳 당위의 일꾼들도 쉽게 접어들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당위원회 일꾼은 로동자,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 가능성여부를 알아보았다. 부속품과 기술적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으나 과학적으로 타산해 보니 그런것쯤

군중속에 발을 더 든다는 불일 일꾼들은 분국의 발전전망과 관련된 일감들을 더 많이 찾아내었다.

기판자의 전진전투기를 개조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하게 보장할수 있게 된것도, 여러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새라 물보장대책을 세우는 사업에 적극 추진시킬수 있게 된것도 다 당위원회일꾼들이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에 들어가 방도를 모색하고 적극 밀어주었기때문에 이룩될수 있는 성과물이었다.

늘 군중속에 들어가 일감을 찾아내고 그들의 정신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써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분국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기풍은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전경서

## 정신향발동에 성과의 비결이 있다

덕성탄광 5갱 분조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람의 정신향은 무궁무진하며 인민대중이 강한 정신향을 발휘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이 기본이며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우리 당이 밝힌 사상론의 원리이다.

대중의 정신향 잘 발동하면 아무리 높이 세운 목표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덕성탄광 5갱 일꾼들의 사업이 잘 말해주고있다. 갱에서는 지난해 10년간 해마다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성과의 바탕에는 대중의 정신향발동에 선자적인 힘을 넣은 이 곳 당조직의 숨은 노력이 진하게 깔려있다.

대중의 정신향은 더욱 높이 발동하자면 좋은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이 곳 당조직에서는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지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갔으며 이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당조직에서는 갱의 일꾼들부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고 결의목표수행에 힘써 노력해 오면서 아글라글 애쓰도록 하였다.

한편 당조직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가 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하며 누구나 자기가 수행하여야 할 몫을 똑바로 알고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당조직에서는 일꾼들과 탄부들의 정신향발동을 위해 선진실과 중대교양실등에 200여점의 배두산3대갱의 위대성교양자료들과 20여점의 당의 구호들을 게시하여놓고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었다. 또한 일꾼들과 탄부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명식학습을 비롯한 여러가지 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였다.

이 곳 당조직의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는 실재하는 뚜렷이 나타났다.

채탄 1선대 채탄공들은 투박의 일로 어느 한 살림집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배두산3대갱의 초상화를 안건하게 모셔내오는 수령정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이 곳 일꾼들과 탄부들은 지난해 기간 급수산기념공전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비롯한 중요한 장소들을 정성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리고 탄광구내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과 영성함을 진뻑하기 위한 사업에 갱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온갖 지성을 다 바쳤다.

당조직에서는 대중속에 결의목표수행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책임이요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관점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결의목표수행에 힘써 노력해 오면서 아글라글 애쓰도록 하였다.

전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같이 대중정열을 높여 발명하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으로 벌려 대중의 정신향이 혁명전선에서 더욱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였다.

무엇도 서슴없이 바치는 미용이 활짝 꽃피었다.

한 채탄공이 사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갱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모두가 떨쳐나 필요한 건강식품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마련해주어 그가 안치되어 다시 초소에 서도록 하였으며 부모없는 한 채탄공이 새살림을 꾸리게 되었을 때에는 결혼상도 성의껏 차려주고 부엌공간을 비롯한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것을 마련하여주어 그가 본심혁업과업수행에 전심전력하도록 하였다.

갱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몇 달부터 한 특영예군인을 위해 잘 도와주었으며 인민군대원호사업도 실속있게 벌리었다.

당조직에서는 탄부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과 생활환경을 보장해주는것이 정신향발동을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보고 경쟁사와 문화후생시설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로 마련되어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와 토기를 많이 취 후방공급 사업을 적극 개선해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갱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대중운동의 성과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객관적인 물질경제적 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상태에 달려있다고 한 우리 당의 사상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해 주었다.

그렇다. 대중의 정신향발동에 선자적인 힘을 넣으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

본사기자 최시출



앞은 광산에서 일꾼들이 받들고 있는 배두산 3대갱의 위대성교양자료들과 20여점의 당의 구호들을 게시하여놓고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었다.

앞은 광산에서 일꾼들이 받들고 있는 배두산 3대갱의 위대성교양자료들과 20여점의 당의 구호들을 게시하여놓고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었다.

이 곳 당조직에서는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지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갔으며 이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당조직에서는 갱의 일꾼들부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고 결의목표수행에 힘써 노력해 오면서 아글라글 애쓰도록 하였다.

한편 당조직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가 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하며 누구나 자기가 수행하여야 할 몫을 똑바로 알고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 세기적변혁을 창조해온 승리와 영광의 역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 ㄷ. ㄷ》결성 84돐에 즈음하여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토론회와 영화발상회가, 한 배를로 주 캄페나시에서는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한 배를로 주 캄페나시 부시장 그리고 국제민주녀성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추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리카르두 알레마우 아브레우는 토론회에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브라질공산당원들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경사로 된다고 하면서 그이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전우적인사를 드린다.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사회주의강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 세기말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이 추오의 혼란없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던 것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다.

조선로동당의 투쟁성과는 사회주의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브라질공산당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승리의 력사와 귀중한 경험을 적극 따르며 배우며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우리는 반제, 자주, 평화를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것이다.

국제민주녀성연맹 위원장 마르세이 데 캄페스 베레이라는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경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지난 65년간 단 한번도 로선상각오 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왔으며 조선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의 락원을 건설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고있으며 나라의 경제형편이 아무리 어려워 위도 인민들을 위한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사회주의적 변혁을 실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있으며 2012년에 사회주의강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주의의 조성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면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영화화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오늘의 평양》이 상영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에리트리아사회주의당이 10월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으며 김정일영도자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65년의 력사는 인민을 이끌어 세계적변혁을 창조해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영도밑에 인민들을 승리로 향도하여 조선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으며 세계자주화위업을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조선로동당은 특히 지난 세기 말엽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시련을 겪고있던 때에 김정일영도자를 수위에 모시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사회주의로 불러일으켰으며 오늘을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이어 강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으로 전민을 힘있게 조직하고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 서고있다.

지난 9월 28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는 김정일영도자를 변함없이 당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그이의 영도하에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의지가 과시되었다.

에리트리아사회주의당은 조

신로동당대표자회의의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며 김정일영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

에리트리아사회주의당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 《. ㄷ. ㄷ》결성 84돐에 즈음하여 10월 5일 자유투표투쟁을 위한 배우 민족독립운동이 기념발레편을 발레하였다.

발레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사건을 그리고 조선로동당기와 당마크, 우리 인민의 경제건설성과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여러 제목의 과극 함께 편집하였다.

발레편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도하는 영도자 김정일동지 김정일영도자를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전하였다.

발레편은 《조선로동당의 력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 ㄷ. ㄷ》를 결성하시면서 조선혁명은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 ㄷ. ㄷ》의 강령과 전제위인의 조국해방명령, 전국업적을 소개하였다.

발레편은 또한 《조선로동

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은 창건후 조선인민과 함께 진보적인 투쟁을 해왔으며 투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세계적판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정당들과 달리 철저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정치적합모부로서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은 당과 인민대중이 혈연적으로 연결된 당, 백전백승의 강령의 당, 수령주의의 기치를 높여 백과검고 정치사상적으로 일심단결을 이룩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친리마운주파 3대혁명을 벌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여왔다.

조선시대에는 제 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자들의 책동으로 긴장상태가 조성되었으나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기치높이 적들의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조선인민과 사회주의의 심장속에서 영생하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영도하신조선인민을 승리로 인도하고있다.

## 선군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조선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관 무하는 국제무대에서 자주와 평등의 위엄을 치며 승리와 영광의 상 상봉으로 추켜올리는 우리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라 바라보면서 그 비결을 경이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쳐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에서 찾았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세계 공화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불화와 반공화국압박책 동, 편이 들이타치는 엄청난 자연재해에도 굴하지 않고 허리를 졸라매며 견인발발의 정신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 환시키고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선군정치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권력이 불패되었으니 다져 지지 않았다. 조선 민족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달려들어서 자기의 존재마저 유지하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평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음 푸말랑가주위원회의 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지키며 보장하는 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필수적인 무기이다.

현실은 선군정치만이 나라를

중공독재주의의 로명성 대변 시에 있는 대변기관차생산공사는 오랜 기관차생산력사와 현대적인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의 기업소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하시는 나날에 친히 이곳을 찾으신 기업을 연인과 생산 정형을 료해 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

이 창건된 후 기업소는 6차례의 대규모 기술개조를 통하여 세계선진수준의 내연기관차도 자체로 설계제작할수 있는 현대적인 기관차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1954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증기기관차를 자체로 설계

이 적으며 오염도가 낮은것은 조 직적으로 평가되고있다.

이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캐 도전차도 질이 높다고 한다.

지난 기간 《기관차의 요람》에서는 기업판리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하였다.

기업소에서는 또한 환경정리 사업과 로동안전사업을 적극 벌려 《전국선진기업》, 《전국적 효익형성선진기업》, 《공민속의 기 술혁신을 하고 《인위없는》의 기업문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지식의 힘으로 기업소의 진보를 이룩하고 새로운 발전공간을 개척하여 높은 수준의 기관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대련기관차생산공사 중앙인 들의 노력투쟁과 그들이 이룩 하고있는 성과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고 있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리 영

펜 공업지구로 로명성을 전승 시키려는 사업경과 책임감을 지니고 첨단기술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물의 질을 높이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종합적인 생산기술을 제고하고 기업소의 장기발전과 경영을 높게 결합시킬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이미 이룩한 생산도 대에 기초하여 철도장비의 현대화요구에 맞게 기술발전방향을 확고 정하는 동시에 실천경험과 투쟁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하고 《인위없는》의 기업문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지식의 힘으로 기업소의 진보를 이룩하고 새로운 발전공간을 개척하여 높은 수준의 기관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대련기관차생산공사 중앙인 들의 노력투쟁과 그들이 이룩 하고있는 성과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고 있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리 영

## 나라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

나이지리아대통령 콜라크 에 벨레 조나타니 10월 30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할것을 전 인민들에게 호소 하였다.

그는 2012년까지 정부가 내세운 경제발전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안

## 국제 사회 계가 찬탄

크며없이 지기고 인민들이 행복 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선군정치의 덕으로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브라질사회주의청년동맹은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강화에 모든것을 다하였으며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해서도 강력한 핵 억제력까지 갖추었으며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법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미국이 조선에 눈을 든 것처럼 여기면서도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을 보면서 국제사회는 조선의 전쟁역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세계평화의 믿음직한 보루로 전변시키고 김일성각하의 선군정치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선군정치는 김정일동지께서 실시하고계시는 정치로서 체제적으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한 주체사상의 계승발전으로 된다.

선군정치의 실시는 군사건설을 일관하여 증시하여 조선의 전통적인 국가관과 일치한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군대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참가하고있으며 사상과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군

## 은을 내는 굴지의 기관차생산기지

제작한 이 기업소에서는 1958년에 첫 내연기관차를 만들어내놓았다.

지난 기간 《기관차의 요람》에서는 10여종의 증기기관차, 40여종의 내연기관차, 근 40종의 철도차량을 설계제작 하였다. 이곳에서 만든 내연기관차의 총생산량은 전국총생산 량의 50%이상에 달한다.

최근년간 이 기업소에서는 기관차연구제작에 보다 큰 힘을 넣어 연구개발주기를 줄이고 질을 높였으며 전국적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기관차들은 연료를 많이 절약하고 소음

## 미국 반부패해체를 요구

엘 쉘바도르신문 《코 라더노》가 10월 31일 미국이 반부패해체를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대다수 성원국들의 지지밑에

## 외세의 압력을 배격

최근 미국과 나토성원국들이 북부아프리카지역에서 《반 테러와자위》를 개시하라고 파키스탄에 계속 압박하고있는것과

## 발전도상나들사이의 협조

남아프리카와 모잠비크가 10월 29일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발전시킬 데 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협정들은 모잠비크대통령의 남

## 기술대학 설립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상이 10월 28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팔레스티나독립국가들이 기어 창설할 립장을 표명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영토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립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독립국가 창설 립장 표명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상이 10월 28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팔레스티나독립국가들이 기어 창설할 립장을 표명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영토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립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이스라엘군의 폭압 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10월 21일 가자지대의 베이 트하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2명의 팔레스티나로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 20일 이스라엘군은 예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 예르메헤에서 쳐들어 수색소동을 벌리던 끝에

## 새로운 의로기 개발

어느 나라의 연구자들이 최근 플렉서블을 고경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새로운 의로기구를 개발하였다.

이 의로기구는 물에 의해 굳어지는 종전적과는 달리 포방탄선이나 자외선의 에너지를 가하여 굳어지고 수지와 유리섬유를 혼합하여 만들었다.

새 의로기구는 수술실과 제해현장 등에서 널리 리용될것 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 세계 상 식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협약가입국의 자연 및 문화유산가운데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 하는것을 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에 등록한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유산제도를 내오 게 된것은 에리트리아의 나메르 통명정권시절 니장강류에 아스 완안제가 건설되면서 인공호수 에 물이 불어 주면의 호수

## 무모하게 요동치는 군국주의독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제침의 길로 더 욱 공공연히 걸음추고있다. 얼마전 부산앞바다에서 강행한 미제와 남조선 호전파들의 《대항상무기화산방지구 사》판별 해상합동연습에 일본해상 《자위대》가 참가한것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번 해상합동연습에 미호전력들이 조선반도에서 기어 이 군사총돌을 일으키려는 불순한 기도에서 비롯되는 군사작전이었다. 하지만하여 이 연습은 이미전에 그 무 슨 《안보》와 《동맹관계》강화를 표 방하면서 조선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 을 판관으로 감행한데 이어 올말까지 조선반도 주변에서 북침전쟁연습 의 판관도 크게 벌려놓는다는것을 선 포한데 따라 벌린 무모한 군사적소동 이였다.

미국이 떠드는 일본, 남조선과의 《동맹관계》강화란 곧 우리 나라를 반대 하는 침략적결단, 3각군사동맹조작 책동을 의미한다. 3각군사동맹형성을 완성하여 일본과 남조선은 합법적으로 대조선침략전쟁의 돌격대로 씌워 버리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속심이다.

미제는 이 일본과 조선반도 《유사》를 가한 《공동작전계획》을, 남조선과는 북침전쟁계획을 작성하고 더욱 완강한 조건에서 남조선피해들과의 해상합동연습에 일본을 참가시키 는것을 통하여 침략전쟁의 통합체제 의 완성, 즉 미, 일, 남조선군사체 회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일본 을 아시아에서 저들의 대리인, 하수인 으로 내세워 이 지역에 대한 지배와 통제권을 손쉽게 수립하려 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피해들과 함께 조선반도 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수리시설과 먹는 물공급시설 건설

중국 광둥성자치구에서 지난해 겨울철과 올해 봄철에 수 리시설건설에 힘을 넣어 농경 지관개척을 690만 2300무 새로 늘였다.

또한 이 기간 2849개의 먹는물공급시설을 건설하여 226만 64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를 해결 하였다.

자치구에서는 올해 겨울철과 다올해 봄철에도 이와 같은 공사를 계속 벌려 관개면적을 70만무 또 늘이고 300만 명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보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 남아시아의 구알라 룬부르

브라질에서 올해 9월에 실 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 감소되었다.

10월 21일 이 나라 통계 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